

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강의 12B -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의 사명

마태복음 12b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이 수업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지막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이 이 책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이 책을 계속 전파하고 가르치며 더욱 주의 깊게 연구하는 여러분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28장 1-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28:11-15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경비병들의 유대 관리들의 보고입니다. 마지막으로 28:16-20에 나오는 대명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8:1-10에 나오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28:1-10의 핵심은 천사가 무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돌을 굴리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천사는 두 여자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의 주인이 27:61에 따르면 금요일 저녁에 묻혔던 곳에 더 이상 묻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천사와 빈 무덤이 경비병들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들은 기절합니다.

신실한 여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이시며, 더 이상 그분을 슬퍼할 필요가 없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분의 부활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실제로 부활을 목격한 여덟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기적적인 행적은 다른 모든 것의 전제이며, 16장 22절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수동태 동사의 암시적인 행위자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외경 사건을 예고하는 지진입니다(28:2). 세 번째 증인은 28:6에서 실제로 부활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천사입니다. 네 번째 증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의미하는 빈 무덤 자체입니다(28:6b). 다섯 번째 증인은 28:8에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리기 위해 서둘러 간 충실한 여인입니다. 여섯 번째 증인은 예수님 자신으로, 길에서 여인들을 만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증인은 의식을 되찾고 대제사장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리는 경비병들입니다(28:11).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증인은 부활을 부인하려는 음모를 꾸민 종교 지도자들로,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이 사실임을

간접적으로 증언합니다. 부활의 신학은 어떻습니까? 종종 부활절로 미뤄지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 없이는 예수님의 사역은 슬프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분은 28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마태복음 수난 이야기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구원 그 자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마태복음 신학의 여러 주제들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 즉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신 주님이 아니라 미혹된 거짓말쟁이가 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오직 동정심만 받을 뿐, 믿음과 순종은 받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사명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의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신명기 21:22, 23, 갈라디아서 3:13).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자신의 구속의 피를 상징하는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는 헛되이 흘려졌을 것입니다(26:27-29).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를 위한 사도적 토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제자들을 제자로 다시 돌아오게 했기 때문입니다(26:31, 32).

28장, 7장, 10장에 나오는 두 여인이 전한 믿기 어렵지만 참된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을 것이 무엇이였을까요? 만약 베드로와 그의 동료 제자들이 계속해서 배신하고 부인하는 자로 남았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반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기적인 삶 대신 희생적인 삶의 모델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의 모순을 가르치시며, 진정으로 풍성한 삶은 이기심에 죽은 삶이고, 진정으로 비참한 삶은 이기심에 사로잡힌 삶이라고 확신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가 면류관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면, 이 모델은 불완전합니다.

여기서 그의 가르침을 10장 38절, 39절, 16장 24절, 26절, 20장 26절, 28절, 23장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창세기 3장에서 인류 타락 이후 이 땅에 행해진 모든 잘못이 바로잡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영원토록 변명 없이 울부짖을 것입니다(23장 35절).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과 비교해 보세요.

동료 인간에게 악과 폭력을 행한 자들은 결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며, 정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단 13:37-42, 다니엘 12:2). 부활은 온 인류의 최후 심판을 보장합니다(단 13:37-42, 16:27, 25:31). 다니엘 12:2과 사도행전 17:31과 비교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사탄이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의 백성의 부활과 상급도 없을 것입니다(단 27:51-53).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의 핵심은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종말론적 약속입니다(4:17). 그 왕국은 제자들의 소망과 가치관의 초점이 됩니다(6:10과 6:33). 하지만 만약 왕국이 무덤 속에 던져지거나 그대로 남아 있다면 어떻게 이 땅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남아 있다면, 그분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높여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좌가 비어 있다면,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열두 보좌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이 세상의 것을 버린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19부터 21, 13:43, 19:27부터 29까지를 살펴보고 다니엘 12:3, 요한계시록 2:26, 27, 3:21을 비교해 보십시오.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관심과 이해를 얻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는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한 압축이 오히려 축소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소위 복음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진정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제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경비병들의 보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정말 엉뚱한 전개입니다! 이전에 지도자들은 부활 가짜설이 나올까 봐 경비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경비병들이 진짜 부활이 일어났다고 보고합니다.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속인 것입니다. 잠재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 확보한 바로 그 경비병들이 이제 실제 문제를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짜 뉴스를 조작하고, 모두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의 부활이라는 사실에 혼란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책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제자들이 지진을 틈타 시신을 훔쳤다고 진심으로 믿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그들은 그것이 거짓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지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4절에서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비난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을 고의로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해석자로 믿지 않았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에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31을 보십시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 결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의 개종자를 언급하는데(24:1, 44), 그중 다수가 제사장들이었다고 사도행전 6:7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미래에 예수님에 대해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다른 설명들 중 어떤 것도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는 설명은 명백히 거짓이며, 다른 이론들도 더 나은 설명은 없습니다. 어떤 이론들은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았다거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단순히 기절했다가 나중에 부활했다고 주장하거나, 제자들이 너무 많은 소망적 사고를 하다가 집단 환각을 경험했고, 그들 모두가 예수를 보았다고 생각했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을 사전에 배제하는 선형적 세계관에 의해서만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를 완전히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어떤 대안보다 훨씬 더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며, 예수의 대위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에 대해 살펴보고, 이 구절들이 대위임령의 배경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셔야 했던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대위임령의 배경을 제시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토박이들이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갔다가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이 만남은 매우 적절합니다.

갈릴리가 이방인들과 이전에 교류했던 것을 고려하면,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면, 모든 민족에게 선교하라는 사명이 여기에 주어진 것은 적절합니다. 이제 겨우 열한 명인 제자들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이름 없는 산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산을 어느 시점에 지명하셨을 것입니다(28장 10절). 산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산에서 만나셨다는 사실은 독자들에게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으신 일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이전의 산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28장 17절에서 사명을 위한 준비가 계속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두 신실한 여인처럼 경배합니다. 그러나 의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했다"로 번역된 단어는 1431년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며 바람을 보며 의심했던 그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주저하거나 흔들렸다고 번역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블룸버그는 이 단어가 불신앙보다는 자발적인 예배의 부족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다른 경우, 이 단어는 "적은 믿음"이라는 익숙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주저함으로 모든 의심으로 보든,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설명된 예수님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위임령은 마태복음의 절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제자 양성 명령은 마태가 이미 예견했던 두 가지 기독교론적 주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론적 주장은 28:18에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진술입니다. 두 번째는 28:20b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들이 시대의 끝까지 그분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나 능력을 주신 것은 다니엘 17:13, 14, 18:22, 27을 반영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20-23, 빌립보서 2:6-11, 골로새서 1:15-20, 베드로전서 3:18-22와 같은 구절에서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예견합니다. 마태복음 28:18과 다니엘 7장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인자의 권세가 그에게서 그의 공동체로 넘어가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와 같은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사명은 인자처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백성을 구원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과 행위로 이 권위를 증명하십니다. 해그너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일종의 영구적인 변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유익하게

지적입니다. 제자들이 변형에서 잠깐 보았던 영광은 이제 승천하신 인자이신 예수님의 삶의 영구적인 양식이 됩니다.

이제 28장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므로 이제 제자들을 선교에 파송할 위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예수님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10장, 5장, 6절에서 제자들에게 왕국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15장 24절 참조). 하지만 이제 그분은 제자들에게 왕국의 메시지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아마도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의 후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되풀이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민족'이라는 용어를 모든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유대인을 이 사명에서 제외하지만, 이는 오류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방인 선교는 이스라엘 선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10장 23절은 이스라엘 선교가 계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시대 교회의 관행이 유대인 선교를 계속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데이비스와 엘리슨은 보편적 주재권은 보편적 선교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핵심 책임은 자신을 재생산하고 더 많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다른 활동들은 본질적으로 제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 그대로 순회하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가오면서, 제자라는 용어는 더 은유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그들에게 가야 할 것입니다. 세례는 새로운 제자들이 교회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세례는 유대인의 의식적인 씻음과는 다르며, 반복되는 행위가 아니라 단 한 번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는 삼위일체적 공식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와 다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28:20).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주요 기관으로서 교회의 중심 역할을 시사합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제자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20a에 따르면, 선교 사명에는 새로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과 마태복음의 주요 담화가 이 가르침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버드는 1981년 주석에서 모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가르침에서 배제하고, '명령'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13장의 새 계명으로 제한함으로써 분명히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이한 해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교사, 실로 토라의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교사이셨기에, 그의 제자들이 이러한 맥락을 계속 따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5장 17-20절과 7장 21-27절에 따라 불순종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선포하심으로 시작된 대명령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시겠다는 약속, 곧 2820년에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끝맺습니다. 제자들의 책임은 참으로 막대하지만, 그들에게는 놀라운 자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면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깊이 받아들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임마누엘, 즉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불리셨습니다(1:23). 이사야 7:14과 비교해 보십시오. 따라서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제자들과 함께하시겠다는 약속과 일치하며, 마태복음 전체를 예수님의 임재라는 주제로 포괄합니다. 동정녀 잉태와 탄생을 통해 예수님은 1:23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셨고, 교회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계획을 성취할 때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셨듯이, 이스라엘의 흩어진 양들(9:36)과 사탄에게 압제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도록 하셨고(12:17-29),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를 가능하게 하셨던 것과 같은 성령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논쟁과 징계의 어려운 시기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임재와 권세가 그들의 결정을 인도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18:18-20). 이 임재는 영원하며, 세상 끝날까지 지속됩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표현은 이미 13:39-40, 13:49, 그리고 24:3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현 질서의 종말에 있을 종말론적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 사명은

단지 최초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로 바쁠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13-53, 사도행전 1:11, 요한복음 20:19-21:23. 물론 마태복음에는 이 예루살렘 출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복음서들을 조화롭게 정리하는 데 있어 이 모든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따르면, 그리고 물론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에서 만나 시대를 초월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마태복음 14:31). 이 의심에 대한 해결책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임재를 점점 더 깨닫게 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들은 선교 프로그램의 책임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모두"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에 바로 압도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가 태어나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항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보편성과 그분의 임재의 영속성은 보편적 제자 양성 명령 프로그램의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하실 것임을 깨달을 때에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과거에 주신 권능과 지속적인 임재를 묵상할 때에만 현재의 우주적 선교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주적 사명은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권능과 임재로 인해 가능합니다.

잠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백성의 연약함과 그들이 저지르는 모든 실수, 그리고 그들의 자원의 부족함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명령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다른 맥락에서 말했듯이, 누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니엘 7장 13절 이하에서 인자로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임재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무기를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대명령에서 비롯된 신학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28:1-10), 유대 지도자들의 은폐 공작(28:11-15),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묘사하는 짧은 장으로 끝맺습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후 예수님의 현현을 간결하게 다루며, 유대 지도자들의 부활 반대와 높임받으신 메시아의 사명을 강조합니다.

전자는 부정적이고 후자는 긍정적이라는 이 두 주제는 마태복음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면 이제 익숙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신학을 요약하는데 대위임령에 나타난 주제들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대위임령의 배경은 회복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온 마음으로 예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복음서 전반에 걸쳐 제자들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초적인 사역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로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이 사명이 기독교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 7장 13절 이하에서 발췌한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왕권을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왕국 신학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왕국에는 실현된 요소와 실현되지 않은 요소가 모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예수님의 이전 지상 사역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면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보상을 약속합니다. 대위임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그저 곁에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참된 제자를 만드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 즉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묘사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제는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 반복되며,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주제가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만들어갈 제자들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연상시키는 열렬한 개종자들이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예수의 족보에서 이방인 여성들을 강조한 이유, 동방박사들이 갑자기 나타나 예수를 경배한 이유, 8장에 나오는 로마 장교가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발견한 것과는 다른 놀라운 믿음을 가진 이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든, 거의 기적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의 능력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지,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태가 이전에 그의 이야기에서 떨어뜨린 이 모든 암시와 다른 암시들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정점에 도달하는데, 그곳에서 사명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마태가 특정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다는 암시를 던진 것만으로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추구하는 선교 사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편적 선교가 우주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즉,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제자로 양육될 때 새로운 인류,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인종적 차별,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마르크스가 그의 저서에서 묘사했던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과 부르주아 지주 계급의 대립,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소비니즘과 페미니즘의 갈등, 그리고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없는 성적 갈등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인류로서 화해하는 길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함께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 사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인류의 첫 조상에게 주신 최초의 창조 사명을 부산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땅을 돌보는 청지기가 되어야 했으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자연적인 출생으로 그들의 궁극적인 후손이 되고 영적인 출생으로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 궁극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신실한 임마누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해 10장에서처럼 외부인들에게 압박을 받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이며, 18장에서처럼 그들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구할 때에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임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시대가 끝날 때에야 비로소 끝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원수들은 심판을 받고 그들의 희생적인 봉사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 이는 세상 자체의 재생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높임을 받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대한 순종은 더 이상 편파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위대한 책,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